



변동성 낮춘 가상자산… 국경 넘어 송금·결제 자유

가상자산, 현실과 미래

① 스테이블코인이 뭐길래

디지털 머니 시대 본격 진입
페북 ‘리브라’ 선언 후 본격화
가상자산 급락 방어 수단 주목
인플레이 대응 새 자산역할 기대

“1년 안에 새로운 글로벌 화폐 리브라(Libra)를 도입하겠다.”

2019년 6월 페이스북은 은행 계좌가 없는 전 세계의 소외계층을 위해 모바일 기기만으로 자유롭게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개발·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에서 자금을 송금하면 계좌가 없더라도 카카오페이에 자금이 전달되는 것 처럼 페이스북 생태계에서 리브라를 사용해 계좌가 없이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거세게 비판했다. 사기업이 단일통화를 사용하면 돈세탁, 세금 회피,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어오는 밀물은 막을 수 없다’고 했던가. 2025년 현재 전 세계는 거세게 밀려오는 스테이블코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스테이블(Stable·안정적인) 코인은 달러나 금 등 실제 자산에 고정되어 변동성이 낮은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1

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대표적이다.

◆ 가상자산을 위한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11만 달러대를 넘어선 후 11만9900달러까지 올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자 급락했다. 이날 기준 비트코인은 10만8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약 20일 만에 원화로는 1400만원가량 떨어진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빠르게 하락하면 비트코인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가격이 하락하면 팔리는(매도) 사람이 늘어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쉽지 않은데, 스테이블코인 구매로 불안을 털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을 원하는 가격에 살(매수) 수도 있다. 해외 주식을 원하는 가격에 사기 위해 달러로 환전해 두는 것처럼, 원화나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국내·해외 거래소에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은 국가와 관계 없이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널뛰는 물가에 대응할 수 있다. 2025년 2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르헨티나로 연간 84.5%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밀가루를 5만 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소에 살 수 있었다면 올해는 9만2000페소에 사야 하는 셈이다.

이때 온라인 노동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급여를 받거나, 외국에서 일한 뒤 스테이블코인으로 돈을 보내면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다. 코인1개를 달러로 받아 아르헨티나 페소로 환전하면 구매력을 지킬 수 있다.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송금도 가능해 시간과 (수수료)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불공정·불투명성 해소 과제 배당촉진 위한 제도 준비 중”

이재명 대통령, 거래소 방문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간담회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과 배당소득세 인하 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후 모두 발언을 짧게 하고 시장감시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들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시장감시위 직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불법 공매도 제재 등과 관련해서 최종 제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라는 의견, 온라인상의 리딩방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해외에서 시장 감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파견 기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또 가상자산 시장 감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언급됐다.

이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껌데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 이제는 다 바뀌어서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배당 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이 배당 규모를 높이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경우에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똑똑해야 산다… AI 전쟁터 된 가전·車

삼성·LG, 맞춤형 AI 가전 승부수
자동차도 SDV 개발로 기술경쟁
내수부진 속 판매량 반등세 지속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자와 자동차 등 국내 산업계가 올해 핵심 키워드로 일제히 ‘AI’를 올려놓고 기업간 생존 경쟁에 돌입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 기능을 강화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량 확대에 나섰다. 양사는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상황에 맞춰 작동하는 맞춤형 AI 기능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마음 잡기에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AI 가전을 앞세워 ‘AI 가전은 삼성’이라는 공식을 공고히 다지며 판매

확대에도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1~5월) 에어컨·냉장고·세탁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증했다. 제품별로 보면 가정용 스탠드·벽걸이 에어컨 누적 판매량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했다. 지난달엔 전년보다 한 달 앞서 하루 평균 판매량 1만대 기록을 달성했다. 비스포크 4도어 키친핏 냉장고 누적 판매량도 같은 기간 약 40% 늘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하나로 합친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도 누적 판매량이 1년 사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엔 한 달간 판매량이 출시 이후 처음으로 1만대를 돌파했다.

LG전자는 AI의 개념을 ‘공감지능’으로 확대해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 제품인 ‘휘센 AI 에어컨’은 올 상반기 스탠드형 누적 판매량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이 제품은 ‘덥다·오늘 열대야네’ 같은 일상 표현으로 냉방을 제어할 수 있는 AI 음성인식 기능과 사용자의 냉방 패턴을 학습해 맞춤형 설정을 제공하는 ‘AI 바람’ 기술로 차별화를 꾀했다.

자동차 업계도 AI기술 개발로 소비자들의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기술 혁신은 단순한 기계적 발전을 넘어 AI와 결합해 우리의 생활을 한층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스마트 어시스턴트 기술의 시작은 AI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단순히 목적지를 안내하는 것을 넘어 실시간 교통 정보와 도로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제시해 준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교육위 리박스쿨 공방… 여 “이주호 불참 책임 물을 것” 야 “김경수 출석해야” /사진 뉴시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첫날 1만1324만건 접수… 법무장관, 복지장관, 검찰총장 순”

▲오석환 교육차관 “늘봄학교 논란 안타까워… 신고센터 운영”
▲국방장관 대행 “미래전장 우위 확보 위해 국방 과학기술 발전 필수”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으로… 적용 범위 확대도” 요구
▲대통령실, 오광수 의혹에 “일부 부적절 처신 있었지만 본인이 안타까움 잘 표해”